

광주·전남 중고거래...캠핑 지고 가구·가전제품 뜯다

중고거래 '당근마켓' 검색어 순위...자전거 3년 연속 부동의 1위 반려식물 열풍에 '화분' 순위 진입...굿즈 파동에도 스타벅스 견제

고물가·고금리를 겪고 있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중고물품 거래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에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 이듬해에는 캠핑과 골프용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는 실내 활동 질을 높이기 위한 가구·가전제품과 식물이 중고거래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29일 중고거래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따르면 광주 5개 구(區) 앱 이용자들이 중고거래를 할 때 가

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3년 연속 '자전거'였다. 당근마켓 앱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현재 위치(GPS)를 기반으로 동네인증을 해야 한다.

부동의 1위 자전거에 이어 광주 지역 2위 검색어는 2020년 '마스크', 지난해 '캠핑'이었다.

올해 1월1일~12월23일 기준 인기 검색어 2위는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의 보편화에 힘입어 노트북과 의자 등 실내 가전·가구가 2위에 올랐다.

노트북은 광주시 동구·북구·광산구(2위)와 서구(3위)·남구(6위)에서 상위권에 들었고, 전남에서 중고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나주(8위), 순천(8위), 여수(9위)에서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노트북 외에도 컴퓨터가 서구 5위, 북구·광산구 8위, 순천 3위, 나주 6위, 여수, 7위에 들었다.

책상과 의자, 선반 등 실내 활동에 도움을 줄 가구를 찾는 지역민도 많아졌다.

실내에서 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반려식물'과 '공기정화식물' 인기가 높아지면서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에서 '화분'이 새롭게 상위권(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캠핑'은 광주 5개 구 모두에서 2위에 들

며 대표적인 비대면 여가활동으로 떠올랐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캠핑' 검색 순위는 광산구에서 5위, 북구 7위, 남구 8위, 동구·서구 9위 등으로 내려갔다.

나주(7위), 여수(10위)에서도 1년 전보다 순위가 내려갔지만, 순천에서는 6위로 새롭게 10위권에 들었다. 경기 침체에 따라 골프 수요도 줄어들자 검색어 '골프'는 올해 순천(9위)에서만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 '스타벅스'는 발암물질 가방 등을 내놓아 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광주 동·서·남·북구에서 10위권에 들며 견제를 과시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중고거래와

관련한 인기 검색어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지난해 최상위권에 들었던 '캠핑'이 올해는 일제히 내려간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마켓이 이날 공개한 '2022년 동네 가게 인기 검색어 톱 10' (전국 기준) 순위 따르면 '헬스'와 '필라테스'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자기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중고거래에 자주 쓰이는 '용달'이 3위로 뒤를 이었고 4위 '네일' (손톱 관리), 5위 '부동산', 6위 '속눈썹', 7위 '이사', 8위 '카페', 9위 '미용실', 10위 '영어' (학원·과외) 등이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 푼다

대출이자 최대 3%까지 보전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 5조원과 소상공인 3조원 등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2조2300억원), 성장기(2조8200억원), 재도약기(6619억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도약기의 경우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

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중점 공급되고 1089억원은 태풍 '한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이 각각 공급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달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존 직접 용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도입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해 주는 식이다.

신청 절차도 선착순이 아니라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거쳐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내년 창업지원 사업에 3조6607억원 투입

중기부·지자체 지원사업 48개 ↑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내년 창업지원사업에 3조6607억원을 투입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통합공고를 통해 밝혔다.

내년 창업지원사업에는 103개 기관 426개 사업이 포함돼 올해보다 지원사업 수는 48개 늘었다. 예산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3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고용노동부(589억원), 문화체육관광부(516억원) 등 순이었다.

광역지자체는 서울시가 396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252억원), 전남(114억원) 순이다.

중기부는 또 이날 소상공인 7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와 온라인 쇼핑물 입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도 통합공고했다.

예산 944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이력서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의 실습 중심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을 개설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TV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정기결제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민간 제휴물 등에 내년 '구독경제관'을 10개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구례 산동농협 '합병권고유예' 대상 해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구례 산동농협이 2007년 '합병권고유예' 대상으로 편입된 지 15년 만에 대상에서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산동농협은 1970년 2월에 설립돼 2000년대 초반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전 부문에서 성장을 거듭했지만, 2000년대 후반 온천업을 비롯한 지역 경기의 쇠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합병권고유예 대상 농협으로 편입됐다.

산동농협 임직원과 조합원이 농협 정상화에 매진한 결과, 정제됐던 산수유 사업이 점차 성장했고 신용사업 역시 제자리를 잡았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산동농협은 지역 조합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농협"이라며 "이번 합병권고유예 대상에서 해제되기까지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약소 농협을 대상으로 조합원 수, 신용사업량, 경제사업량, 순자본비율 등 주요 항목들을 평가해 합병권고, 합병권고유예, 자체 개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광주농산물유통센터 기부금 전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산·왼쪽 2번째)와 농협 광주농산물유통센터(사장 김훈·가운데)는 29일 광산구청을 찾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2400만원의 기부금을 전했다. 이 기부금은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농협 주유소 운영을 통해 마련됐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내년 4월까지 연장

1000억원 지원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1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전날에는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장기적으로 교통·물류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